

수돗물 불안 여전한데 손 놓은 광주시

매년 수도요금 올리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 개선은 '나몰라라'

교체 비용보다 저렴한 수도관 세척 청소구 설치 예산 증액 계획도 없어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주부 김미정(45)씨는 최근 흡수관에서 정수기를 구입·설치했다. 최근 발생한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수도관 이물질 사고 등 잇달아 뉴스가 장식하는 수돗물 관련사고 때문이다.

김씨는 “빠듯한 살림에 월 3만원이 넘는 관리비용이 부담이긴 하지만 아이(자녀)들에게 수돗물을 그냥 마시게 할 수 없어 정수기를 구입했다”면서 “요즘 주변에서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이웃들이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도, 시민불신은 여전히 강고 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매년 수도요금은 인상하면서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 개선은 뒷전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관을 세

척할 수 있는 청소구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7.5% 인상하는 등 3년 동안 계속 올리기로 했다. 지난 2013년 평균 6.42% 인상 후 2년 만이다. 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하려면 적자인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자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정화사업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

수도요금 인상 후에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수도관 청소구 설치 예산 등은 증액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주의 총 상수도관 3733km 중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은 1160km로 전체의 31.1%(전국 평균 26.6%)에 이르고, 전국 특·광역시단체 중 누수율도

11%로 가장 높지만, 예산난을 핑계로 교체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시 등은 누수율이 3%대에 불과하다.

특히 노후 상수도관은 정부에서 1994년부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금) 강관 등으로 돼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도관에 청소구를 이용한 세척공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35억원이나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청소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나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법은 상수도관의 양쪽에 소화전 기능이 있는 청소구를 설치한 뒤 수세미 역할을 하는 포탄 모양의 세척기인 ‘폴리피그’(polly-pig)를 집어넣어 수도관 안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올 초

에는 한달 넘게 휴탕물이 쏟아져 나온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의 수도관 이물질 사고를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초기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해도 수도관 교체비용의 15~20% 정도면 가능하고, 5년 주기로 청소만 하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다만 이 청소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수도관 내 밸브와 밸브 사이에 ‘폴리피그’를 투입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5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름 80mm 이상 전체 상수도관에 청소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간 10억원 안팎의 짙은 예산만을 배정, 오는 2034년에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수도관 세척 작업을 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빠듯해 광주지역 전체에 청소구를 설치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한의사회, U대회 진료단 1차 교육

광주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가 최근 한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병원 한의진료단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광주U대회 한의진료단(단장 최명호)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이현삼 프로축구연맹 의무위원과 하상철 대한배구협회 의무이사 및 이현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한의사들의 강의

로 실전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광주시한의사회는 U대회기간 동안 원, 지정병원의 한의진료단 단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대회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제2차 교육은 오는 21일에 열린 배구협회 의무이사 및 이현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한의사들의 강의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하철에 ‘사랑의 건강 계단’ 만든다

도시공사-밝은광주안과 협약

18일까지 상무역에 설치키로

이용할때마다 10원 적립금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밝은광주안과 광주지하철에 ‘밝은광주 만드는 사랑의 건강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해 화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사진 가운데)와 밝은광주안과(원장 김재봉·왼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3일 사랑의 건강계단 협약식을 맺었으며, 오는 18일까지 지하철 상무역(평동방향) 계단에 기부를 위한 건강계단을 설치한다.

이 계단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출입구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설치된 레이저가 반응하면서 피아노의 음계가 연주되게 설계돼 있다.

특히 시민 한 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계단 옆 전광판 카운터기에 10원의 적립금이 쌓인다. 연간 최대 적립금은 1000만원이며, 적립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건강계단 설치비용 및 기부금은 밝은광주안과에서 후원하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함께 복지단체에 공동 기부하게 된다.



또 칼로리와 건강수명 수치 표시를 통해 건강 상식도 안내할 예정이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면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물론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새로운 기부문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지만 다양한 기부문화를 통해 사회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로 시민들에게 한결을 더 다가가는 밝은광주안과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광주안과는 지난 2009년 개원 이래 기부활동과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빛창공모전을 통한 문화기부, 광주지역 16개 고등학교에서 교육기부 등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 LED조명 세네갈 진출

‘한-세네갈 광통신 프로젝트’

광주지역 LED조명업체가 서남아프리카 세네갈에 진출한다.

광주시는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과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세네갈 정상회담차 방문 중인 마키 살(Macky Sall) 세네갈 대통령과 광산업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하고 ‘한-세네갈 LED-광통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세네갈 LED-광통신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지 생산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세네갈 LED조명 인증규격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해 서남아프리카 지역에 세네갈형 광주 광산업인프라를 구축·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 협의는 지난해 10월 열린 2014국제광산업전시회를 방문한 세네갈 후 ‘한-카타르 LED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세네갈정부(에너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협의에는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 박동욱 한국광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마키 살 대통령은 광산업육성지원을 위한 광주광산업클러스터의 산·학·연 협조 체계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광주광산업이 세네갈형 광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가 U대회 성공개최를 응원함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단장들이 지난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사전답사한 뒤 광주 U대회에서 민간사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 단장 110여명 U대회 참가국 손님맞이 본격 활동나서

광주국제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국가별 민간사절단 역할을 맡은 광주국제우호친선협회가 손님맞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제우호친선협회는 지난 3일 참가 국가별로 광주와 맛, 문화, 끼를 알리게 될 50여명의 단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사전 답사하고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립5·18묘지, 국립광주박물관, 화산전벽, 우재길미술관, 나주혁신도시, 영암한옥마을 등을 답사하기로 하는 등 민간사절단 역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0여 명의 국가별 단장들은 선수들보다 참가국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만찬을 개최하고 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제우호친선협회는 지역기업인, 사회단체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110여명이 대회참가국별로 단장을 맡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김보근 운영위원장은 “광주를 찾은 참가국별 선수 및 임원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광주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U대회의 성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4등 - 족욕기(10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